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3. 10. 11.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 3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 나눔

거듭남의 비밀

인도자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혹시 당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받아본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신앙인들이 당황해하는 것일까요?

이 거듭남이란 말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사람의 눈으로 분명히 보아 알 수 있거나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외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므로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잘 깨달을 수 없는 은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듭남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또 '거듭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본문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거듭남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요?

본문 3절에 '거듭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겐네데 아노텐'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혹은 '위로로부터 태어나다'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위로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로 볼 때 거듭난다는 것은 모태로부터의 자연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한 개인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심으로써 그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그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향하며, 그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분별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따라서 모태로부터 육적으로 탄생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이를 가리켜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중생한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그 영혼을 새롭게 창조 하사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옛 생활을 떠나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시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나에게도 충만하게 있는지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왜 거듭나야 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변호도 해주었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51절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선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에게는 중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중생을 초자연적인 변화로 보지 않고, 단지 도덕적으로 악했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마음의 변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거듭날 때 도덕적으로 악했던 사람이 선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악했던 사람이 선해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선하다 자신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만한 아무런 의도 행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면 누구나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개인이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세례가 거듭나게 하는데 어떤 효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사실을 교회에 알림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시(Sign)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역사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는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가 모태에 태어날 때 무슨 일을 행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협력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신 것도 인간이 무슨 방도를 강구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듭남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본문 6~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자신의 죄악됨과 그로 인한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듭남의 절대적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중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가 이미 거듭났다면, 자신을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듭나지 못하였다면, 자신의 영적 무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가정과 개인에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눔

다 같이

1. 개인 혹은 가정 가운데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2.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개인과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나눠봅시다.

중보 기도

큰빛은혜교회를 위해

다 같이

1. 큰빛은혜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필요한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나도록
2. 언제든 주의 전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속히 이루도록
3.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4. 목회자와 리더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5. 큰빛은혜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주의 전으로 돌아오도록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